

서안의 자라남을 시간화한 장신규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조공예학과

김수지

2015

순서

머리글

- 연구배경
- 연구목적

몸글

1. 연구방법

- 서의 분류
- 순서식문 자라남의 순서와 글

2. 참고작가

- 나탈리아 핀치 Paralya Pincuba
- 김선영

3. 연구 작품

- 순 경
- 제작과정
- 연구작품

맺음글

참고자료

머리글

연극배경

씨안은 식물 심장의 시작이다.

길로 보기에 비슷한 길의 씨안들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은 상 락인 식물이나 외 락인 식물이나에 따라서 자라는 방식도 모양도 다르다. 씨안의 밑에 붙어나거나 흙 속에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은 관찰했던 경험이 있다. 락이 얼마나 나왔는지 뿌리가 얼마나 자라는지 또 그 뿌리가 흙 사이사이에 어떻게 얽어 있는지를 한참을 들여다봤었다. 씨안의 자라남이 주는 시각적인 이미지는 그 안에서 어떤 길이 나올지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연극본지

씨안은 자라남 때 두 쪽으로 나뉘거나 밑의 일부분을 뚫고 뿌리가 돋아난다. 뿌리가 돋아나 그 뿌리가 흙 속에 묻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씨안은 어느새 그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그 길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식물을 볼 때에 심장한 모습, 줄기와 잎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 그 식물의 씨안은 어떤 길인지 씨안 안에서 어떠한 길로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씨안의 자라남을 조형언어로 풀어나가는 작업을 통해 밑에 착용하는 꾸미개를 제작하고자 한다.

목차

1. 연구방법

씨의 분류

- 씨: 식물의 번식에 필요한 기본물질.

씨는 겉씨식물의 씨와 속씨식물의 씨로 나눌 수 있고 속씨식물은 삼피인 식물과 외피인 식물로 나뉜다.

그중 이번엔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속씨식물의 자라남이다.

- **속씨식물**: 생식기관 옆쪽에 알매가 있는 종자식물 중 밑씨가 씨방 안에 들어 있는 식물로서 현화식물(Flowering plant)이라고 한다.

종생태(약 1억 4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 나타나 백악기(1억 년 전)에 확산되어 오늘날 전체 식물의 약 90%를 차지한다. 피인의 수에 따라 삼피인 식물과 외피인 식물의 두 무리로 나뉜다.

[속씨식물 [Angiosperms, 木蘭類 (두산백과)]

- **삼피인 식물**: 씨안의 배에서 처음 나온 피인이 두 장인 식물.

- **외피인 식물**: 씨안 속에 들어있는 배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피인이 한 개인 식물.

(두산백과)

속씨식물 자라남[발아]의 순서와 곳

- **발아**: 적합한 조건에서 씨가 발달하여 식물로 성장하는 과정.

(식물계, 권11권., 뿌리태너키 비주얼사전)

- **삼피인 식물**: 씨안이 자라나면서 씨안 자체가 감항성 한다. 피인은 두 개이다.

근은 뿌리배설은 대부분 퇴화되고 씨눈의 발육에 필요한 양분은 피인에 저장하기 때문에 피인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삼피인 식물 [雙木蘭類Dicotyledonales] (과학용어사전, 권11권. 4. 14., 뿌리태너키)

- **외피인 식물**: 씨안이 자라날 때 씨눈과 뿌리가 나면서 씨안 자체는 배설물로 성장하여 영양분을 싹으로 보내고 일어난다. 따라서 그 싹은 씨안의 피인이 아닌 처음부터 성장 눈(씨눈)이 자라는 것이다.

외피인식물 [-木蘭類Monocotyledonales] (과학용어사전, 권11권. 4. 14., 뿌리태너키)

2. 장식품

- 나탈리아 핀치 Natalya Pinchuk



러시아 작가 나탈리아 핀치는 유기적인 꼴과 기하학적인 꼴, 구조를 배치하여 작품을 만든다. 그녀의 작업은 일정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양은 그녀의 원치소에서 반복된 것이다. 식물의 형상을 떠올리며 작업된 그녀의 작품들은 뿌리와 띠의 사실적 표현이 아닌 생략 또는 과장된 꼴의 표현을 하고자 할 때에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 김신영



김신영 작가는 김소판을 가공하여 식물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얇은 김소판을 두드려 식물의 이미지를 묘사하는데 절제된 색감을 사용하고 김소심형을 통해 입체적 공간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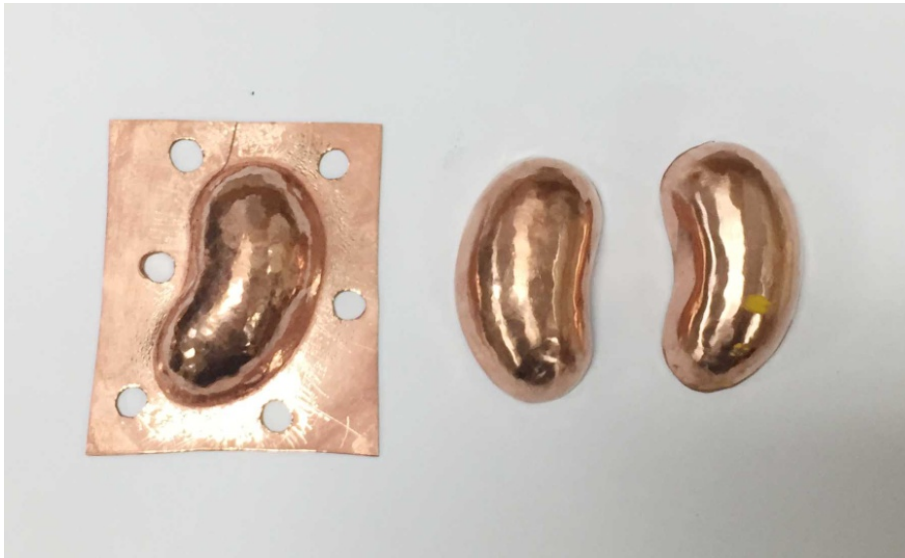
3. 9월경

싹



상 피인 식물의 씨앗 껍질 중 부피가 도드라지는 껍질을 표현하고 싶어서 강낭콩의 형태를 기준으로 그 과정을 영상화하여 찍었다.
 또 외피인 식물 중 번씨의 껍질이 씨앗의 형태로 잘 인식된다고 생각해 번씨의 모양을 기준으로 자라남을 찍었다.

2). 제작과정



틀을 이용해 금소판을 일체진으로 만든 기판으로 강낭콩의 껍질을 제작하였다. 씨앗을 표현하는 부분은 부피감 있는 형태로 제작하고 씨앗 안에서 나오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평면인 형태로 제작하여 부피의 차이를 주었다.

3). 연구작품



자라남 01. 진동, 정음, 색연필 20x100x60mm

강낭콩에서 싹이 튼 잎이 나온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강낭콩의 몸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부피감을 달리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씨앗의 배 부분에는 판의 형태의 장식이 붙게 되는데 질감표현의 차이를 주었고 다른 부분은 색연필로 빛깔을 표현했다.



옷에 꾸민 꽃 - 1 (빛바이 : 양지원, 꾸민 신비: 이재현)



옷에 꾸민 꽃 - 2 (빛바이 : 양지원, 꾸민 신비: 김수지)

맺음말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는 과정의 형상화는 씨앗을 보았을 때, 어떤 식물로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 궁금증을 갖게 한다. 안료의 연관은 금소 이외의 다른 재료를도 함께 사용하여 씨앗의 자라남을 다양한 시각적 효과로 표현하고자 한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과 빛, 영양분, 그리고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나는 금소로 만든 이 씨앗에 상상과 형상화의 과정을 더해 색을 튀워본다.

참고 자료

전용익, *고소공예기법*, 2006

두산백과, *식물 사진*

홍성서안도서관 전자공장 [hs-seed.com]